

신년특집
2003



중국투자에 王道는 없다

중국진출 현황 및 전망, 중국진출시 유의사항

우리나라의 중국투자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현재 중국총투자중 건수로는 68.8%, 금액으로는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 시기에 대해 3년 이후 추진 76.3%, 2~3년내 추진 18.1%, 1년내 추진 0.6%로 응답해 앞으로 2~3년후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점, 국내 기업의 중국투자 비중 급증

수출입 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우리 기업의 대중국투자 실행규모 누계는 모두 6,847건, 61억4천462만달러에 이르고 있고, 투자지역으로는 산동성과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들어 산동성과 동북3성을 벗어나 강소성, 절강성, 상해등 화동(華東) 지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951건에 51억893만달러로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건수로는 전체 해외 투자중 42.8%를 차지하나 금액 기준으로는 15.8%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투자 건수의 52.4%, 전체투자 금액의 32.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의 중국투자는 역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며 중국총투자중 건수로는 68.8%, 금액으로는 53.9%를 차지한다.

신년특시
2007년

표 1. 연도별 중국투자

(단위: 건, 천\$)

구분	해외투자		대중국투자		중소기업의 중국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0	352	145,201				
1981	49	28,211				
1982	49	100,841				
1983	56	108,914				
1984	46	50,188				
1985	38	112,775				
1986	50	182,651				
1987	91	409,710				
1988	172	215,874	1	10	1	10
1989	270	572,595	7	6,360	3	960
1990	340	958,757	24	16,174	16	8,520
1991	445	1,116,150	69	42,469	59	27,304
1992	497	1,219,358	170	141,127	156	85,860
1993	688	1,264,097	381	264,282	335	190,043
1994	1,488	2,302,721	841	633,084	705	282,936
1995	1,324	3,109,587	748	838,393	600	335,840
1996	1,466	4,389,420	734	892,972	488	303,773
1997	1,319	3,567,690	628	723,191	446	155,299
1998	608	4,703,438	258	677,491	172	81,871
1999	1,079	3,226,578	454	347,632	280	83,165
2000	2,029	4,787,616	753	605,035	546	168,951
2001	2,090	4,914,396	1,022	541,356	731	263,673
2002	1,444	1,292,312	757	415,044	521	223,816
계	15,990	38,779,080	6,847	6,144,620	5,059	2,212,021

자료: 수출입은행(2002년 8월말 현재)

그러나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2년 3월말 현재 중국이 비준한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모두 18,864건(계약금액 233.38억 \$, 실제투자 129.36억\$)이나, 2002년 9월말 중국 중앙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경영활동 중에 있는 한국기업은 모두 8,307개에 그친다. 그 중 산동성 소재 기업이 가장 많은 2,701개사(32.1%)였으며, 요녕성(1,576개사), 길림성(855개사), 천진(748개사), 북경(491개사), 강소성(454개사), 흑룡강성(364개사) 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통계와 중국의 통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에서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중 재투자한 기업, 그리고 중국내에서 허가만 받고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통계에 누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기업의 생존율은 약 50%내외의 일 것이나 여기에 허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실패의 잔을 들어킨 기업을 포함하면 생존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 3년 후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본격화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중국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213개사(대기업 47개, 중소기업166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실태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44.1%가 생산거점을 이미 해외로 옮겼고 33.8%는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전한 업체중 추가 이전 계획 의사를 밝

중국진출 현황 및 전망, 중국진출시 유의사항

표 2. 업종별 중국투자 현황

(단위: 건, 천\$)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농림어업	109	32,210	통신업	14	95,377
광업	30	13,899	금융보험업	2	568
제조업	5,951	5,108,925	숙박음식점업	166	248,653
건설업	51	203,969	부동산서비스	251	248,089
도·소매업	225	127,483	기타	1	870
운수창고업	47	64,577	계	6,847	6,144,620

자료: 수출입은행(2002년 8월말 현재)

표 3. 지역별 중국투자 현황

(단위: 건, 천\$)

구분	2001년 12월말		2002년 8월말	
	건수(구성비)	금액(구성비)	건수(구성비)	금액(구성비)
북경시	345(5.67)	431,081(7.52)	387(5.65)	463,731(7.55)
길림성	604(9.92)	184,204(3.21)	634(9.26)	191,158(3.11)
강소성	321(5.27)	663,521(11.58)	387(5.65)	731,321(11.90)
절강성	146(2.40)	209,253(3.65)	170(2.48)	238,838(3.89)
광둥성	141(2.32)	222,231(3.88)	166(2.42)	244,189(3.97)
산둥성	2,025(33.25)	1,659,282(28.96)	2,316(33.83)	1,768,366(28.78)
흑룡강성	249(4.09)	169,613(2.96)	260(3.80)	171,697(2.79)
요녕성	1,109(18.21)	567,218(9.90)	1,185(17.30)	599,017(9.75)
천진시	559(9.18)	752,486(13.13)	636(9.29)	789,384(12.85)
상해시	245(4.02)	491,132(8.57)	316(4.62)	529,177(8.61)
허북성	150(2.45)	73,995(1.29)	169(2.48)	81,652(1.33)
기타	196(3.22)	305,560(5.35)	221(3.22)	336,090(5.47)
계	6,090(100.00)	5,729,576(100.00)	6,847(100.00)	6,144,620(100.00)

자료: 수출입은행(2002년 8월말 현재)

힌 기업도 74.5%에 달해 신규 또는 추가 이전을 계획중인 업체가 전체의 67.6%를 차지 했다. 특히 신규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 시기에 대해 3년 이후 추진 76.3%, 2~3년내 추진 18.1%, 1년내 추진 0.6%로 응답해 앞으로 2~3년후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중인 기업들이 선택한 해외거점 지역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65.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동남아(13.8%), 미국(5.5%), 일본(5.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기업들이 중국을 주진출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86.8%가 국내경영환경이 개선되어도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은 불가피한 추세임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업체들의 중국투자 열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투자에 관한 두가지 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을 근거로

나오는 낙관론과 그동안 실패한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나오는 중국투자 신중론이다. 필자의 입장을 물어 본다면 '둘 다 맞다'고 우답(愚答)을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WTO가입과 올림픽개최 등으로 투자환경의 개선과 내수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 시장은 갈수록 매력을 더할 것이나 그렇다고 쟁길 것을 쟁기지 않고 서두르다 보면 백전백패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해 유의할 사항

중국투자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그동안 여러 형태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표현방법은 필자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동안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투자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사업타당성조사. 둘째, 투자실행단계에서 치밀한 계약서 작성과 합법적인 투자. 셋째, 현지경영단계에서 장기적인 시장접근, 투명한 경영, 유연한 노무관리와 현지화 추진, 협력파트너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이다.

얼핏 보기에 당연한 것 같고 보통의 경우 투자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막상 실행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처럼 되기가 쉽지만은 않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상대가 있는 이상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해보지 않을 수는 더욱 없다. 어차피 모든 투자란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

신년특집
2004



이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꾸준히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출예비단계에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이해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우선 실패사례를 많이 들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여러 사례를 듣고 원인을 분석해 반면교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로 성공사례를 많이 '보아야' 한다. 성공사례를 듣기만 하면 십중팔구는 조급해 진다. 성공기업의 현장과 관리방식을 '직접' 많이 보아야 한다. 셋째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예비자금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정상궤도에 오르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 금융비용이나 상환기간에 쫓기면 아무래도 다급해 진다. 그러다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칫하면 경영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넷째로 중국과 우리의 문화와 제도가 다르고 사람들의 의식구조 역시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이다. 과거의 투자사례 중에는 소위 '판사'를 더욱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제품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우선 순위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5-19일 까지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12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투자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60.2%(77개사)에 달했는데 이들 중 60.5%가 중국투자의 성공요인으로 제품경쟁력의 우위를 들었다. 인맥관리를 꼽은 기업은 5.8%(5개사)에 불과하다.

둘째는 유능한 현지 관리직원이다. 당연히 중국어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인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현지 경영관련 필요한 기본지식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망원경으로 '숲'을 보고 돋보기로 '나무'를 살펴야

중국이 날로 새로운 모습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위 조사대상기업 중 90%(115개사)가 앞으로 중국내의 경영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무조건 낙관하기 보다는 망원경으로 중국이라는 '숲'을 살피고 돋보기로 진출지역과 협력파트너등 '나무'들을 잘 살펴면서 신중한 자세로 진출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중국진출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일 한해가 되길 빈다.



류시화

1993년부터 97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대표를 지냈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대만 국립기남국제대학 동남아연구소(석사),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